의과대학의 문학교육을 보는 몇 가지 시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이 병 훈

Aspects of Literary Education in Medical School

Byoung Hoon Lee, Ph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론 - 문학과 의학의 만남

16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였던 프랑수아 라블레 (François Rabelais)와 19세기 말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겸 극작가였던 안톤 체호프 (Антон Чехов) 그리고 20세기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었던 고트프리트 벤 (Gottfried Benn),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었던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 (William Carlos Williams)를 뛰어난 작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들이 의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의사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도 이 작가들의 작품 속에 의학적 세계관과 감수성, 상상력이 녹아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작품을 읽을 때만 그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문학과 의학’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화두 (話頭)이다. 이 주제를 처음으로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학’과 ‘의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정신영역이 어떻게 나란히 놓여질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는 문학은 인문학이고, 의학은 자연과학이라는 전통적인 학문분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문학은 인간의 고상한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고, 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는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조금만 바꿔보면, 문학과 의학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창조적인 만남과 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먼저, 문학과 의학은 그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 의학의 목적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면, 문학 또한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론, 문학은 의학처럼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예컨대, 감기에 걸린 환자나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하게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게 문학이 당장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다. 감기 환자나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라면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신속하게

교신저자: 이병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929-0368, Fax: 02)364-5450
E-mail: yuscritic@yahoo.co.kr

약을 복용하거나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다. 셰익스피어(W. Shakespeare)나 푸쉬킨(A. Pushkin)의 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위급한 상황의 환자들에게 그 감동의 메시지가 전달될리 만무하다. 편두통(migraine) 환자에게 도스토예프스키(F. Dostoevsky)의 난해한 소설은 극약처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의학은 문학보다 더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다(우리는 이것을 의학의 ‘직접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문학은 고통(통증)의 늪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인간에게 또 다른 차원의 위안을 준다. 즉, 문학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영혼의 위안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사색의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하자면 문학은 의학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병든 영혼을 치료한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학은 인간의 정신적 질환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과학적인 처방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학은 상처와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비인간화된 영혼에 구원의 빛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문학의 ‘간접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가는 메스를 들지 않은 의사라고도 할 수 있다.

고통 받는 환자를 진정으로 동정하고 마음까지 치유할 줄 아는 의사가 질병을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의사보다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점은 의학의 궁극적 목적이 문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본 론

1. 미국의 <문학과 의학> 교육과정의 역사

이미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의과대학의 교육에서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실제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 문학 강의가 개설되는 것으로 반영된 바 있다. 그러면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문학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문학교육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진행된 의과대학의 교육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의과대학에 인문학 관련 학과가 생긴 것은 1967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1969년에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에도 인문학 관련 학과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의과대학에서 인문학 강의가 개설된 것은 의학교육이 너무 자연과학 위주의 기술교육에 치우치고 의학의 인간적 측면을 소홀히 다룬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학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면서 1972년에는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에 Joanne Trautmann Banks가 문학담당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70년대 초반에 문학 강의를 본격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문학 강의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1982년에는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에서 <문학과 의학 Literature and Medicine>라는 잡지를 발행하기에 이른다. 초창기에 이 잡지는 1년에 한번 발행하는 연간지(an annual journal)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행하는 반연간지(a semiannual journal)로 성장하였으며, 미국의 의료인문학 발전의 중심적인 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1995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의과대학 중 3분의 1 이상에서 문학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학과나 인문의학과, 사회의학과 같은 새로운 과가 만들어져서 연극이나 예술계통 과목을 의대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의대생들의 인문학 접촉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과 의학’은 이제 새로운 분과학문으로 성장하여,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창조적으로 접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문학 강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개설되고 있다. 예컨대, 예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본과 학생들과 전공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문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은 의료윤리 세미나, 심지어는 의대교수들을 위한 세미나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문학 텍스트와 문학적 방법론이 환자와의 인터뷰나 임상의학에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반에 미국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문학을 최초로 도입했을 때만해도 문학은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그 효용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문학 강의는 의과대학생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슈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들을 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성(性)이나 인종 등의 문제와 연관된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에는 문학 텍스트의 고유한 속성들, 예컨대, 장르나 관점, 구성, 내러티브 등등을 의학적 상황에 적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밖에도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문학의 다양한 장르들이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소설이나 시, 희곡 뿐만 아니라 자서전이나 의학 보고서 등이 의대생들의 인문학 교육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대학의 부속병원(Shands Teaching Hospital, University of Florida)에서는 연극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환자들과 만나고, 어떻게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며, 환자들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것인지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Homan, & Homan, 2000).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사회의학 교실(the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문학과 의학’을 강의한 켄드릭 프리위트(Kendrick W. Prewitt)는 인간의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과 문학적, 문화적, 종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해하는 강의를 한 바 있다. 그는 이 강의에서 프랑수아 라블레(F. Rabelais), 존 단(John Donne), 오든(W.H. Auden),

디킨슨(Emily Dickinson), 오코너(Flannery O'Connor),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 휘트먼(Walt Whitman), 바흐친(M. Bakhtin) 등의 작품과 저술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Prewitt, 2000). 이 강의는 의대생들에게 인간의 육체가 생물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임상전 의학교육의 통합강의의 일부로 <문학과 의학>이 사용되는 토마스 제퍼슨 대학의 교육경험과 소수에게 집중적 글쓰기 훈련을 시키는 하버드 의대의 글쓰기 과목 교육경험 사례, <문학과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인 문학 교실 및 연구소들이 연합하여 내용을 채우고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이 구축하고 관리해나가고 있는 <문학, 예술, 의학 데이터베이스> 등은 문학과 의학의 만남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접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김옥주, 2002). 예컨대, 하버드 의대에서는 의사 및 의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전공 교수가 진행하는 ‘작문과정’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 강좌의 목표를 살펴보면 의학이 과학화 및 기계화되어 첨단화될수록 의료행위에 수반된 윤리적 문제들을 환자와 일반대중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 등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과 중요성을 의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글쓰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글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명한 문학작품에서부터 임상역사의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읽은 후 질병, 건강, 죽음 및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수필, 회고록, 풍자 등의 형태로 자유로운 글을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뉴욕 의대를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20여개 대학기관에서는 인터넷 시대에 맞게 시, 소설, 수필, 영화 및 예술일반 등 다양한 문학작품들에 대해 문학, 예술,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당 문학작품에 대한 의료 인문학적 해설 및 주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편집진을 살펴보면 문학 및 비평을 전공한 인문학자를 주축으로 의대에서 의료인문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이들도 의료인문학 교육이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해설 및 주석을 작성, 제공하고 있다(이영미 외, 2003).

2. 문학과 의료윤리

앞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문학과 의학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회통(回通)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실용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연결된다. 다시 말하자면, 의학에서 문학의 쓰임새가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학교육에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의료윤리 교육에서 문학의 역할이다. 문학은 의료윤리(medical ethics)나 생명윤리(bioethics) 교육에 중요한 메시지와 자료를 제공한다. 이것은 문학이 생명윤리를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문학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인간의 조건’을 사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령, 그것도 전투적인 ‘감성적 강령’일 뿐이기 때문이다.

1815년 약사와 외과의사 수련과정의 일부로 런던의 가이스 병원(Guy's Hospital)에 들어가 의학공부를 하기도 했던 영국의 천재 시인 존 키츠(John Keats, 1795-1821)는 “오늘밤 나는 왜 웃는가?”(Why Did I Laugh Tonight?)라는 시에서 “시와 명성과 아름다움은 참으로 강렬하다/ 그러나 죽음은 더 강렬하니, 죽음은 삶의 숭고한 보상이어라”(Verse, Fame, and Beauty are intense indeed/ But Death intenser-Death is Life's high meed)라고 노래했다. 만약, 키츠가 생명을 부정하고 죽음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다면, 그의 문학은 인간의 생명윤리와 근본적으로 대립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그의 작품을 고전적 품격을 지닌 걸작으로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츠의 시를 그와는 반대로 읽는다. 즉, 이 작품에서 키츠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삶과 생명의 충동이 좌절되는 경험을 노래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역설적으로 생명의 충동을 찬양하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문학은 본질적으로 생명윤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문학의 논리는 곧 생명의 논리요, 생명에 대한 찬양이며, 생명을 위한 투쟁이다. 만약, 어떤 문학작품이 ‘본질적인 목적’을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명윤리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덜 떨어진 아마추어리즘의 치기어린 구토(嘔吐)거나 아니면 천박한 상업주의와의 계산된 매춘일 뿐이다.

문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는데, 이것은 속되게 표현하면 문학의 애교이고, 전술이며, 소비자(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허위 광고’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학이 현란하게 표현하는 ‘허위 광고’는 소비자들을 감각적으로 속여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와는 반대로 문학의 전술적 논리는 매우 비경제적(혹은 超경제적)이며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키츠의 시에서도 보듯이 문학의 ‘위험한 발상’은 오직 ‘인간의 근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예를 수없이 들 수 있다. 가령, 근대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은 비도덕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의사나 의대생들의 영원한 도덕적 이상형인 슈바이처나 노먼 베쏰과 같은 인물은 결코 소설의 훌륭한 주인공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슈바이처나 베쏰과 같이 도덕적으로 ‘이미 완성된 인물’들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문학의 ‘위험한 발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설 속에서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은 ‘이상적인 인물’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완전한 ‘문제적 인물’(G. Lukács)들이다. 예컨대,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 나오는 주인공 바자로프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등장하는 라스콜리니코프, 스비드리가일로프 등은 도덕적으로 ‘하자(瑕疵)’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생명윤리를 부정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성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인물들은 정신적으로 번민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혼의 구원을 받거나, 혹은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만다.

소비자들은 처음에 문학의 ‘위험한 발상’에 혹해 거기에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문학의 ‘근본적인 논리’에 수긍하게 된다. 이렇게 문학은 흔히 역설의 논리를 즐겨 사용하면서 비도덕적인 인물을 통해서 도덕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반(反)생명으로 ‘위장한’ 생명윤리의 사상을 퍼트린다. 바로 이것이 윤리학의 방법과 다른 문학의 ‘비윤리의 윤리학’이다.

칠레의 현대시인 니카노르 파라(Nicanor Parra)의 탁월한 풍자시들은 오직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신을 모독하는 듯 하면서 신성(神性)을 찬양하며, 이로써 현대인의 왜곡된 종교적 심성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니카노르 파라, 1995).

마치 속세의 보통 사람과 같이
인상을 찌푸리고
온갖 종류의 문제를 머금은 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더 생각하지 마소서.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것을 무너뜨리면서
악마가 당신을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비웃지만
우리는 당신을 동정합니다.
그 사악한 미소를 걱정하지 마소서.

불손한 천사에 둘러싸여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 받지 마소서.
신(神)들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우리 아버지”의 전문)

신은 완전무결하지 않고, 인간인 우리가 신의 불완전함을 감히(?) 용서한다는 거대한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니카노르 파라는 그에게 묘한 미소를 던지며 다음과 같이 속삭일 것이다. “각각의 귀가 아니라 보다 고귀한 것/영혼을 위하여 곡조 없는 노래를”(키츠, 1991) 들으라(이 구절은 “그리스의 항아리에 부치는 노래”(Ode on a Grecian Urn, 1819)에 나오는 것으로 원문은 “Not to the sensual ear, but, more endear’d / Pipe to the spirit ditties of no tone”이다. 원문에는 ‘곡조 없는 노래를 부르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논리이다.

3. 문학과 의사소통

둘째는 실제로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문학적 방법들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이다. 노스웨스트 의과대학의 교수이며 <Literature and Medicine>의 편집위원이기도한 헌터(K.M. Hunter)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문학과 의학의 만남은 더 이상 의학교육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학연구의 방법과 전망들은 의학적 텍스트, 의학적 담화 그리고 의학 그 자체를 자세히 음미할 수 있게 한다. 내러티브, 주체성, 언어, 메타포, 상징주의 그리고 종교적 의식에 관한 관념들은 의사들의 작업이나 그들이 얻고 응용하는 지식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Hunter, 1991).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의사는 반드시 그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환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의사는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뉴욕병원의 내과 의사이며, 저명한 의철학자이기도 한 에릭 카셀(Eric J. Cassell)의 지적대로 “질병의 사실과 그 적절한 치료는 웅변술(雄辯術, rhetoric)에 능통한 의사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웅변술은 설득력 있게 말하는 기술을 뜻하며, 과학과 기술이 환자를 위해 옹계 쓰이도록 하는 기술과 더불어 임상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강신익, 2002)

이렇게 보면 문학 속에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키워드(key-word)와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나 문화적 배경, 독특한 언어구사 및 화법 등 의사들이 임상과정

에서 필요한 정보들의 전형적 사례들이 문학작품 속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임상의학에서 핵심적인 주제중의 하나인 의학적 면담 (medical interview) 과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 교육에서 문학의 역할이다. 예컨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소설가 솔제니친 (A.I. Solzhenitsyn)이 1967년에 완성한 “암병동” (Раковый корпус)이라는 장편소설은 임상의학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훌륭한 예이다.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이 유형생활 중에 겪은 타슈켄트 종합병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작품에는 암병동에 입원해 있는(실제로는 갇혀있는) 환자와 의사, 간호사, 가족들 간의 얽히고 설켜 이야기가 정치적 알레고리를 매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을 읽는 특수한 독자들, 즉 의과대학 학생이나 의사, 간호원, 환자, 환자의 가족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술하고 생생한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는 ‘병원에 처음 온 환자들의 끔찍한 심정’에서부터 ‘질병이 인간에게 끼치는 심적인 영향’, ‘의사의 회진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 ‘회진을 끝낸 의사의 심리상태’, ‘환자와 의사의 권리’, ‘환자가 질병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환자와 가족의 심리’, ‘환자와 의사의 대화술 - communication skill’, ‘재판을 받는 의사’, ‘약의 처방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견해 차이’, ‘수술 받는 환자의 심정’, ‘환자의 입장이 된 의사 - 환자와 의사의 역할 바꾸기’, ‘과학 (의학)과 도덕적 가치의 관계’, ‘의사의 거짓말’ 등 우리가 병원에서 직접 부딪치게 되는 상황들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문학작품은 수많은 대화 (dialogue)와 다양한 화법 (narrative)으로 가득 찬 의사소통의 보고(寶庫)이다. 문학작품 속에는 나이, 성(性), 사회적 지위, 성격, 학력, 외모, 사회적 출신, 직업, 취향, 육체적·정신적 질병, 가족관계 등에 따른 다종다양한 인간들의 삶과 이야기들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의학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다루는 과학인 한, 문학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문학과 심미적 교육

셋째는, 의대생들의 심미적 교육 (aesthetic education)에서 문학의 역할이다. 문학(예술)을 통한 심미적 교육은 의대생들의 지각적 민감성 (perceptual sensitivity)과 상상력 (imagination), 감정이입능력 (empathy)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교육은 실제로 탁월한 임상 능력을 가진 의사를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심미적 교육이란 예술작품의 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미적 경험을 통해서 심미적 가치 (aesthetic value)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적 민감성과 상상력, 감정이입능력 등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능케 한다 (한명희, 2002). 이런 점에서 심미적 교육은 인간에게 실제적인 지식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지식의 섬세한 숙결과 살아있는 힘을 느끼게 한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제공하는 개념적이고 서술적인 지식은 인간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이러한 모든 지식에 대해 ‘공감’ (sympathy)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식의 완성이란 바로 주어진 지식에 대한 살아있는 공감의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다양한 심미적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심미적 능력들, 즉 상상력이나 감정이입능력 등의 도움을 빌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윤리 교육에서 이러한 심미적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윤리란 순수한 의미에서의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윤리적이다 혹은 비윤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많고 적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윤리란 인간의 지식과 행동에 ‘살아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인간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공감이다. 이런 점에서 심미적 교육은 윤리교육을 개념적이고 서술적인 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천적 지식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학교육에서 심미적 교육의 의미와 역

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그러나 의학교육에서 심미적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미적 교육은 의사들의 정신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케 하는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항상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들의 평균수명이 다른 전문직업인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심미적 교육을 통해 의사들이 스스로 조화로운 인간 정서를 가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결론 - 문학 속의 의학 혹은 ‘의료문학’

문학과 의학의 만남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층위들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문학이 의학으로부터 새로운 방법론적 가능성과 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학은 의학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학으로부터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학은 문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과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예컨대, 의료행위나 의료인을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의학적 관점은 매우 시사적인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것은 문학연구에 의학적 관점을 접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과정을 환자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묘사한 걸작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정신과 의사이며, 현대 죽음학 (thanatology) 연구의 개척자인 쿠블러 로스 (Elizabeth Kubler Ross)가 제시한 말기환자가 겪는 다섯 단계의 심리상태라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작품의 주제나 주인공의 성격, 플롯이 더 명확하게 이해된다. 로스에 의하면 말기 환자의 정신상태는 대체로 다섯 단

계의 과정을 거친다. 즉, 1) 부인과 고립 (denial and isolation), 2) 분노 (anger), 3) 거래 (bargain), 4) 우울 (depression), 5) 수용 (acceptance)의 과정이 그것이다 (전병술, 2001).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에서 이반 일리치가 죽어가는 과정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독자들이나 비평가들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이와 같은 의학적 지식과 관점에서 읽는다면 그 작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행위나 의료인을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을 의학적 지식과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문학해석방법이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과 의학의 만남’은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의학을 인문학, 특히 문학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의학을 문화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의지이다. 이것은 의학을 휴머니즘과 인간학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야만 한다는 현대 의학의 근본적인 선언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강신익(2002). *고통 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떨어진 의사를 위하여*. 코기토.
- 김옥주(2002). ‘문학과 의학교육-외국의 현황’, *의학과 문학의 만남. 대한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회 자료집*.
- 니카노르 파라(1995), 강태진 역. *아가씨와 죽음*. 솔.
- 이영미, 이영희(2003).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국의학교육*, 15(2), 86-87.
- 전병술(2001).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청계.
- 한명희(2002). *교육의 미학적 탐구*. 서울: 집문당.
- Homan E. and Homan S(2000). “Dancing in Very Narrow Spaces”: Pinter’s *A Kind of Alaska* in Performance. *Teaching Literature and Medicine*.

edited by A.H.Hawkins and M.C. McEntyre.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NY.
Hunter K.M.(1991). 'Toward the Cultural Interpretation of Medicine'. *Literature and Medicine*,

10, 15-16.

Prewitt K.W.(2000). *Teaching the Body in Texts: Literature, Culture, and Religion.*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NY.